

2021년 9월 2주 |

# 키움 ESG Brief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 글로벌 ETF/주식 김진영 02-3787-4870 / jykim@kiwoom.com

RA 이지민 02) 3787-4776 / jimin.lee@kiwoom.com



## Issue Check:

### 바이든 행정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업체 지원에 나서

- 31일(현지시간) 미국 토지관리국(The Bureau of Land Management, BLM), 9월에만 총 4번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인허가 및 공유지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착수할 계획
- 최근 재생에너지 업계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건립을 위한 임대료와 수수료가 너무 비싸 투자 유치가 어렵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 이에 대응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 및 풍력 사업자들이 공유지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수립 중
- American Clean Power Association의 법률 자문, "과도한 비용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미국은 자생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을 이뤘을 수 없고, 이와 함께 파생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발전 등의 수혜를 누리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

Solar panels are seen at the Desert Stateline project near Nipton, California



자료: Reuters

## 주간 ESG 뉴스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Update (8/30~9/3)

## ▲ 기후 및 환경 관련

## Europe's banks lagging on sustainability – BlackRock study

- 블랙록, 은행 내 다양한 부문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사이트 및 데이터에 기반한 273P 분량의 보고서 발표. 이에 따르면 유럽의 은행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처가 더디고, ESG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상당히 제한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은행과 감독 규제당국의 노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 건전성 감독, 비즈니스 전략 및 투자 정책 등에 걸쳐 ESG를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작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특히 은행들은 ESG 리스크에 대해 공통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으며, 대출 기관들은 다양한 ESG 리스크가 재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된 바가 없고, 일부 만이 리스크 전략을 배치해 둔 상황
-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은행과 감독 당국들에게 ESG 리스크의 세부적인 정의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에게는 ESG와 관련하여 측정가능한 목표 및 타임라인과 함께 야심찬 전략을 설정할 것을 요청

<https://reut.rs/3DuS1mt>

## EGEB: Maryland will spend \$3.7M on electric car chargers

- Larry Hogan 메릴랜드 주지사, 메릴랜드 주에 36개의 공공 급속 EV 충전기와 145개의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총 \$370만 규모의 자금 투자계획 발표. 이 투자금은 폭스바겐이 지불하는 합의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주 정부는 올해 연말 해당 프로젝트에 합의금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투입할 계획. 참고로 현재 메릴랜드 주에는 36,000대의 전기차가 운행 중이며, 공공 급속 충전기는 Elkton의 Dunkin' Donuts, Annapolis의 Exxon, Silver Spring of Safeway 슈퍼마켓과 같은 곳에 설치될 예정
- 한편 The Inc. 5000에서 3년 동안의 매출 성장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들의 순위를 공시. 2021년 상위 20개사 중 3곳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 기업. 11위의 Texas Solar는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설계, 개발, 설치 및 유지, 관리 업체로 3년 동안 매출 22,381% 성장. 12위는 워싱턴 주 Pasco에 위치한 Solgen Power, 주로 태평양 북서 지역에서 태양광 장비 판매 및 설치 담당하는 업체로 3년 간 매출 21,709% 성장. 14위의 Solar Bear는 태양광 패널, 스프레이 폼 단열재(spray foam insulation), 태양광 지붕 설치 업체로 19,218% 성장

<https://bit.ly/38tlvyA>

## EGEB: The UN announces the official end of leaded gas worldwide

- UNEP(UN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전 세계적으로 가연 가솔린(leaded gasoline) 사용을 중단시키겠다고 발표. 지난 달 알제리의 한 경우 공장이 전 세계 마지막 가연 가솔린 재고를 소진 완료
- Inger Andersen UN 사무총장, 전 세계적으로 수 억 명 인구의 건강과 죽음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을 악화시킨 한 세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이제 청정 에너지 차량과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함으로써 인류 삶의 궤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했다고 설명
- 미국은 도로 주행용 차량을 위한 청정대기 법안(Clean Air Act)을 통과 시키면서 1996년 1월 1일 가연 가솔린 사용을 금지했으나, 여전히 항공기, 경주용 차량, 농기구, 해양용 엔진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 국제적으로는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이 가연 가솔린 사용을 금지시켰으나 2002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여전히 해당 연료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
- 한편 Southern Alliance for Clean Energy (SACE)에 따르면 운송 교통의 전력화는 미국 남동부 지역에 매년 \$470억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https://bit.ly/3Duel3>

## Biden administration aims to cut costs for solar, wind projects on public land

- 최근 재생에너지 업계,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건립을 위한 임대료와 수수료가 너무 비싸 투자 유치가 어렵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 이에 대응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 및 풍력 사업자들이 공유지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 중
- 31일(현지시간) 미국 토지관리국(The Bureau of Land Management, BLM), 9월에만 총 4번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인허가 및 공유지 사용권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 공청회 세션은 부지 임대 일정 및 풍력 및 태양광 사용 수수료, 신청 처리 기간 및 환경적 고려사항 등에 초점 맞춰 진행될 예정
-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정책 하에 주요 태양광 프로젝트는 매년 부지 임대료로 에이커당 연간 \$971를 지불하고 있으며, 전력 발전 1MW당 연간 \$2,000 이상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만약 3,000 에이커에서 250 MW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매년 약 \$350만을 지불해야 하는 셈. 풍력의 경우, 임대료는 이 보다 낮은 수준이나 수수료가 \$3800로 태양광보다 높음
- American Clean Power Association의 법률 자문, "과도한 비용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미국은 자생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을 이룰 수 없고, 이와 함께 파생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발전 등의 수혜를 누리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

<https://reut.rs/2YfaZgV>

## CDP가 발표한 물영향지수 높은 산업은? 의류·화학연료·금융

-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가 발표한 물 영향 지수(water impact index)에 따르면, 의류·화학 연료·금융 서비스가 수자원에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으로 손꼽힘. '물 영향 지수'는 전 세계 산업이 수자원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툴(tool)로 산업의 공급망, 직접운영 및 제품 사용 등 3가지 관점에 초점을 두고 답수 배출 및 소비, 수질 오염 등 여러 환경 영향력을 평가
- 이번 분석 결과, 의류디자인과 제조업은 각각 18점을 받았고, 섬유 산업은 16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 이 외에도 농식품, 화학, 채굴, 정제 등 화학연료를 추출 및 가공하는 산업 모두 '심각한' 영향력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
- CDP는 성명서를 통해 화학, 의류, 제약 기업들에게 금융기관들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발암성 독성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등 인간과 지구에 위협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지적. 투자자들은 앞으로 물 지수를 활용하려 물 발자국을 공개하지 않는 기업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설명

	<p>- 케이트 램(Cate Lamb) CDP 물 보안국장은 물 안전과 넷 제로 달성을 위해 세계 경제산업을 전환해야 하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특히 수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은 물을 고갈시키는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관행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p> <p><a href="https://bit.ly/3jskXUk">https://bit.ly/3jskXUk</a></p>
8/30	<p><b>2100년까지 거의 모든 '해수면 기후' 사라질 위기</b></p> <p>- 노스이스턴대 연구진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한 연구에서, 탄소배출량이 현재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는다면 2100년까지 '해수면 기후(surface climates)의 95%가 사라질 수 있고, 적응하지 못한 해양 생물은 사망하게 되는 암울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또 현재 탄소배출 추세를 바탕으로 계산할 경우, 80년 안에 해수면의 80% 이상이 고온과 산성 기후로 뒤덮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 냄</p> <p>- 동 연구는 지난 300년 동안의 해수면 기후를 모델링 해 진행되었으며, 특히 적도 부근과 남극 이남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새로운 기후로 인해 해당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p> <p><a href="https://bit.ly/3BxtgEF">https://bit.ly/3BxtgEF</a></p>
8/31	<p><b>U.S. health department sets up climate change office</b></p> <p>- 美 보건복지부, 기후변화와 국가 차원의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 이슈 다루기 위해 기후변화 사무국을 신규 설립. 가용과 산물을 포함해 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나 환경 오염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회 약자 및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p> <p>- Xavier Becerra 보건복지부 장관, 현재 미국이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지적. 기후 변화는 단순 기후,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p> <p>- 바이든 대통령은 전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그의 정치 목표 중 핵심으로 손꼽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정치 목표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기후 리스크 전략을 120일 내로 제출할 것을 5월에 요청하기도 함. 또한 Becerra 장관에 따르면 이번엔 설치된 기후 변화 및 건강 형평성 사무국은 그 전략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p> <p><a href="https://reut.rs/3gRTM3D">https://reut.rs/3gRTM3D</a></p>
8/31	<p><b>BOJ can't promote 'green' activities without govt strategy -ex-BOJ board member</b></p> <p>- Sayuri Shirai 일본은행(BOJ) 전 정책위원, 일본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믿을 만한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일본은행은 친환경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 또한 대출 만기 연장이 무제한으로 갱신될 수 있어도 은행들에 대출을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는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게다가 정부가 친환경 활동이나 기업들의 친환경 정보를 자세히 공시하는 것과 관련해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린본드 시장은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p> <p>- 한편 Raghuram Rajan 前 인도중앙은행 총재, GMF(Global Market Forum)에서 지속가능 투자를 장려하는 데 책임은 중앙 은행이 아니라 정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Shirai 도 해당 견해에 대해 지지 표명. 그는 정부가 지속가능 투자에 출선수법 해야하며, 중앙은행은 지지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p> <p><a href="https://reut.rs/3gPIYIC">https://reut.rs/3gPIYIC</a></p>
9/2	<p><b>China's Hebei may let big taxpayers cut output less on pollution days</b></p> <p>- 중국 내 최대 철강 생산 지역인 하북성, 악명 높은 유독성 공기 정화 작업 위해 2018년부터 기업들에게 도시 내 배기가스 및 대기오염 수준에 따라 생산 작업 자체할 것을 명령. 그러나 2월부터 산업 생산이 크게 둔화되고(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하북성 탄산시(Tangshan)는 좋은 공기를 위해 철강 등 여러 산업의 운영을 3월 중순까지 축소한 바 있음), 5월 이후에는 작년 수준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하북성은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 시 해당 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오염 방지 조치 수정할 계획</p> <p>- 하북성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기업들이 기존의 정상적인 생산 속도에 최대한 가깝게 혹은 정상 생산 속도로 운영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 Hebei Daily 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높은 임금, 우수한 수익, 낮은 오염물 배출량을 자랑하는 주요 납세자들을 우선시하여 그들에 대한 평가 항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나설 예정. 그에 따라 기업들이 스모그와 같은 악천후 속에서도 섰다우하는 빈도를 줄이거나, 시행하지 않더라도 되게끔 도울 예정. 철강, 코킹(coking), 플라스틱, 화학 및 비료를 포함한 50 여 개의 산업 내 기업들이 새로운 평가 구조 대상이 될 계획</p> <p><a href="https://reut.rs/2WVNY1D">https://reut.rs/2WVNY1D</a></p>
9/2	<p><b>Hard for central banks to extend QE to fund green policies, ex-policy maker says</b></p> <p>- 마크 카니 前 영란은행 총재, 통화정책이 지배해왔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으며, 지난 10년 가까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오던 중앙은행이 친환경 정책 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자원에 나서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 후 반 스티니스 前 영란은행 수석 보좌관 또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정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다"고 발언</p> <p>-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기후 변화를 통합하고 친환경 정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해 온 가운데, 2명의 정책 입안자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하는 책임이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동시에 스티니스는, 지속가능 정책으로의 전환이 계속되면서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과 시장 건전성 유지하면서 정책 전환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 또한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데이터의 투명성과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를 꼽았음</p> <p><a href="https://reut.rs/3kLu3Lk">https://reut.rs/3kLu3Lk</a></p>
9/3	<p><b>中 "정치적 긴장관계, 美와 기후변화 협력에 악영향" 경고</b></p> <p>- 기후변화 문제 협이자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서로 인식 차이를 노출한 가운데 1일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정치적 긴장관계가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p> <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中 외교부는 케리 특사와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동 종료 후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케리 특사는 2일 "정치보다 기후변화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문제를 정치와 별개로 다루길 것을 요구</p> <p>- 앞서 1일 왕이 외교부장과의 대화에서 케리 특사는 "기후변화의 도전에 맞서는 데 있어 미-중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며, 미국은 중국과 상호 존중하고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길 원한다고 제안. 하지만 왕이 부장은 "기후변화 협력은 양국 관계와 무관할 수 없다"고 지적</p> <p><a href="https://bit.ly/38ibPEM">https://bit.ly/38ibPEM</a></p>

▲ 기타/통합

**ESG investing is not yet popular but important to those who know: Survey**

- Yahoo Finance-Harris Poll 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미국 성인 1,053 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20~24일 사이, 연령, 지역,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조건의 미국인들이 ESG 투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지에 대해 조사), 미국 성인의 1/3가 ESG 투자 개념에 익숙하다고 답변. 또 이 중 77%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ESG 평가 등급을 고려한다고 대답
- 미국 성인 중 32%가 ESG 투자에 익숙하다고 응답했고, 밀레니얼 세대는 51%, Gen Z 세대는 37% 응답 집계. 한편 ESG 투자에 친숙한 밀레니얼 및 Gen Z 세대는 각각 95%, 97%가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ESG 성과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
-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GSIA)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미국의 지속가능한 자산에 투자된 AUM은 17조 1천억 달러. 전 세계적으로 ESG 요소를 통합시킨 지속가능 투자가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2019년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AUM 35조 3천억 달러에서 2025년 53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https://yhoo.it/3DFnltC>

9/1

**SEC Wants Sustainable Funds to Disclose More About Their Criteria**

- 캔슬러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자사가 보유한 펀드가 친환경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운용사들은 기업 선별 시 사용한 기준과 데이터를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캔슬러 위원장은 SEC가 펀드 매니저들에게 ESG 투자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를 요구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 이와 관련해 SEC 직원들에게 공시 요건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공개 의견(public comment) 수렴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
-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ESG 투자는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 이와 동시에 많은 펀드 상품들이 ESG 투자 중목을 선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상 다양한 ESG 평가 제공업체와 평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SG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업계 표준이 부재한 상황

<https://bit.ly/2WfU8Uc>

9/1

**Regulators Intensify ESG Scrutiny as Greenwashing Explodes**

- 지난 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독일 금융규제기관 BaFin 이 DWS 자산운용의 ESG 투자 제품의 적격성에 대해 조사 착수한 이래, ESG 펀드 운용사들을 향한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음. 연구기관들 또한 기후위기와 사회적 정의로 라벨링된 펀드들을 마케팅하는 자산관리자들의 자격에 대해 의구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
- 영국 소재 비영리 단체 InfluenceMap은 기후 테마 펀드의 절반 이상이 현재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저탄소, 탈화석연료 및 친환경에너지 테마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펀드들의 55%가 환경과 관련된 주장을 과장했고, ESG 목표 달성을 약속하는 펀드들의 70% 이상이 목표 미달인 것으로 분석. Christiana Figueres UN 기후변화협약 前 사무총장은 글로벌 국부펀드들이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는 전략을 고수한다면 역사적으로 잘못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 Daan Van Acker InfluenceMap의 연구원은, "최근 몇 년 동안 ESG와 기후 테마 펀드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와 규제 기관의 그린워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발언

<https://bit.ly/2WPYwUT>

9/1

**한국, ESG 정보공시 기준 IFRS 방식 따른다**

- 금융위,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s)가 제정할 지속가능성 기준을 국내 표준으로 삼겠다는 입장 표명.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IFRS 산하 ISSB 기준을 국내 ESG 정보공개의 베이스라인으로 할 것"이라면서 "ESG 보고 기준의 방향성이 상당히 정해졌다"고 설명
- 금융위는 ESG 공시 기준을 IFRS 기준에 따랐을 때 이를 시장에 공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과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의무공시 두 가지를 놓고 검토 중. ESG 정보공시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표준화되면 기업들은 공시 관련 세부 업무와 비용 측면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 한편 재계에서는 기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형태의 공시는 비용이 평균 1억원 이상으로 과도하게 들고, 기업들이 자율 보고하는 맹점을 이용해 자화자찬성 얘기만 과도하게 늘어놓아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보고서 활용도는 매우 낮다고 주장

<https://bit.ly/3l3GKRZ>

9/2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국내외 산업/기업 ESG 동향 Update (8/30~9/3)**▲ **기후 및 환경 관련**

8/30	<p><b>시노펙, 2025년까지 수소 에너지에 5.4조 투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국영 정유사 시노펙,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수소 에너지 분야에 300억 위안(5조 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 동사는 올해부터 2025년 사이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연간 1백만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전기차용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40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증설할 계획</li> <li>- 시노펙은 현재 20개의 수소연료 충전소를 보유 중이며 60개의 충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에 포함 중.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페트로차이나와 CNOOC 과 마찬가지로 석유보다는 천연가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올해 하반기에 천연가스 생산을 전년동기대비 13.5% 늘릴 예정</li> </ul> <p><a href="https://bit.ly/3gKXXhs">https://bit.ly/3gKXXhs</a></p>
8/29	<p><b>Amazon's biggest, hardest-to-solve ESG issue may be its own worker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올해 초 아마존을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고용주 명단에 포함시킴. 아마존의 환경 관련 ESG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직원을 다루는 방식이 포함된 사회책임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li> <li>- 아마존은 새로운 안전 수단과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과 보건을 담당할 현장 인력을 6,200명으로 늘리는 등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마존의 이직률도 함께 치솟음 (연간 이직률 150%)</li> <li>- 또한 로봇이 직원을 관리하고 앱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는 아마존의 노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여전. 이러한 시스템은 아마존이 작업장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을 제거한 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영향</li> </ul> <p><a href="https://cnb.cx/2V7ilff">https://cnb.cx/2V7ilff</a></p>
8/30	<p><b>China's SVOLT Unveils Cobalt-Free EV Batter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EV 배터리 제조업체인 SVOLT Energy Technology, 세계 최초로 코발트가 없는(코발트 프리) EV 배터리 시리즈의 양산을 시작했다고 발표. 향후 동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중국 지역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현재 청두 모터쇼에서 전시 중인 장성자동차(Great Wall Motors)의 ORA Cherry Cat SUV 에 탑재되어 있음. SVOLT 에 따르면, 코발트 프리 배터리 팩은 충전 시 총 82.5KWh의 전기를 170Wh/kg의 에너지 밀도로 저장할 수 있으며 상온에서의 주행거리는 600km 이상</li> <li>- SVOLT 에 따르면, 세계 코발트의 절반 이상이 콩고의 Katanga Copperbelt 에서 채굴되고 있으며, 15~20%가 영세 광부와 소규모 채굴 작업에서 추출되어 심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 옴. 또한 코발트 매장량이 매우 타이트하여 향후 몇 년 후에는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고 있음</li> <li>- 이에 따라 자동차 OEM 업체들은 코발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음. 가령 메르세데스 벤츠는 최근 차세대 배터리셀에서 코발트 비중을 10% 미만으로 줄일 것이며, 새로운 재료를 구성해 코발트와 같은 물질을 완전히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힘</li> </ul> <p><a href="https://bit.ly/3mVxZfk">https://bit.ly/3mVxZfk</a></p>
8/31	<p><b>AT&amp;T Launches Initiative to Help Businesses Reduce Emissions by 1 Billion Ton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통신 및 미디어 대기업 AT&amp;T, 2035년까지 10억 미터톤의 온실 가스(GHG)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Connected Climate Initiative' 출범을 발표. 이는 미국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에 해당. 전세계적으로 기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테크,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산업 내 선도 기업들과 대학, 기타 기관들과 함께 협력할 것으로 전망 됨. AT&amp;T에 따르면 기후 솔루션은 상업 및 제조 시설을 위한 IoT 솔루션, 운송 및 에너지 산업을 위한 AI 관리 및 모니터링 솔루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광대역 기술까지 다양</li> <li>-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주요 협력업체로는 Microsoft, Equinix, Duke Energy 등이 포함. Microsoft는 Azure Sphere 가 탑재된 AT&amp;T Guardian 과 같은 제품 개발로 AT&amp;T와 협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 및 분석하여 효율성을 식별하고 탄소 배출원을 줄일 수 있을 전망. Equinix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매우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할 것이며, Duke Energy는 AT&amp;T와 광대역망 기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li> </ul> <p><a href="https://bit.ly/3t8UTkd">https://bit.ly/3t8UTkd</a></p>
8/31	<p><b>Nouveau Monde Admitted to the Global Battery Allianc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의 배터리 소재 생산업체 중 하나인 Nouveau Monde, 권위 있는 GBA(Global Battery Alliance)의 정회원으로 인정됨. GBA, 지속 가능한 배터리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는 세계경제포럼의 이니셔티브로, 지속 가능성, 탄소 중립성 및 모범적인 ESG 관행에 대한 Nouveau Monde의 확고한 약속이 GBA의 창립 원칙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li> <li>- 누보 몽드 CEO "업계의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ESG 관행과 투명성을 우리 부문에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 ESG 표준을 통해 지속 가능성 및 공급망 추적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고성능의 신뢰할 수 있는 고급 재료를 제공하여 세계 최고의 배터리 및 자동차 제조업체에 전략적 공급업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li> </ul> <p><a href="https://bit.ly/2YhcjzH">https://bit.ly/2YhcjzH</a></p>
9/2	<p><b>BMW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car life cycle 40% by 203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MW, 차량 생산 공정을 포함한 차량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최소 40%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발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동사는 차량 제작 과정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부품 사용 비중을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li> <li>- Oliver Zipse BMW CEO, 동사는 파리협약에서 결정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 이전에 동사는 화석 연료 차량 단계적 폐지의 엄격한 기한 설정에 대해 주저했었으며, EU 및 기타 지역 내 EV 충전 인프라 부족을 근거로 전기차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li> <li>- 그러나 최근 이들은 2030년까지 판매 차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구성하고, 킬로미터당 Co2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최소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 한편 다른 경쟁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동사는 최근 분기 실적에서 예상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했으나 향후 몇 달 동안 반도체 칩 부족 및 원자재 가격 이슈로 매출 부진 겪을 수 있다고 경고</li> </ul> <p><a href="https://reut.rs/2WQtkjq">https://reut.rs/2WQtkjq</a></p>

9/2	<p><b>"밀 재배 과정에서 온실가스 줄이자" ... 식음료 업계, 탈탄소화 박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소비자의 68%가 기후 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37%는 개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22%는 탄소 발자국을 상쇄하고, 67%는 탄소 라벨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최근 식품업계들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li> <li>- 미국 식품 가공 및 생산 업체인 ADM, 1일(현지시간) 미국 밀가루 밀링 운영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달성했다고 발표. ADM에 따르면, 전국 22개 공장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실행했고, 오래된 시설을 최첨단 공장으로 교체하는 등 기술력도 업그레이드를 진행</li> <li>- 한편, 국내 식음료업계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기업평가사이트 CEO 스코어가 지난달 국내 500대 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는 77곳을 대상으로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식음료업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 241톤에서 2020년 151톤으로 37.3% 감소</li> </ul> <p><a href="https://bit.ly/3kSB3GI">https://bit.ly/3kSB3GI</a></p>
9/5	<p><b>수소모빌리티+쇼, 8일 개막...나홀로 일산 킨텍스서 개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12개국 154개 기업들이 모여 수소 관련 기술을 전시하는 '수소모빌리티+쇼'가 오는 8일 개막. 올해 수소모빌리티+쇼에는 주빈국 스웨덴을 포함해 미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전 세계 12개국, 154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 ▲수소모빌리티 ▲수소충전인프라 ▲수소에너지 분야의 제품 기술을 선보일 예정</li> <li>- 국내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그룹·포스코그룹·현대중공업그룹·SK그룹·두산그룹·효성그룹·코오롱그룹 등이 참가하며, 해외기업으로는 프랑스 에어리퀴드, 미국 에어프로덕츠, 오스트리아 AVL, 프랑스 생고뱅, 독일 워첸만 등이 전시부스를 꾸림</li> <li>-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세계 각국의 수소 및 연료전지 분야 민간협단체 대상으로 국제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하는 '국제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도 진행. 1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력을 강화하고, 수소경제 이행 주요국가들의 현황과 비전, 전략을 공유하는 '국제수소컨퍼런스'가 개최 됨</li> </ul> <p><a href="https://bit.ly/38hVIMj">https://bit.ly/38hVIMj</a></p>

▲ 기타/통합

8/31	<p><b>ESG 경영 트렌드 속 과학기술의 역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경영자 래리 핑크, 올해 초 "기후변화는 기업의 장기 전망에 결정적 변수이며,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국가와 기업은 추락할 것이다." 라는 발언과 함께 환경 분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li> <li>-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향후 관련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지 못할 수도, 심각한 경우 이미 받았던 투자를 철회 당하게 될 수도 있음. 이에 대응하여 마이크로소프트, 10억 달러 규모의 기후혁신 펀드(Climate Innovation Fund)를 조성하여 탄소 제거 기술 개발을 지원. 애플, 2030년까지 애플 기기 제조 과정 전체에서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li> </ul> <p><a href="https://bit.ly/3jDxqEx">https://bit.ly/3jDxqEx</a></p>
------	---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ESG 투자 동향 Update (8/30-9/3)

▲ 주식 및 펀드 시장

8/30	<p><b>Sovereign Wealth Funds Are MIA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총 \$1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전 세계 국부 펀드들이 잘못된 편에 서있다고 지적. Christiana Figueres 유엔기후변화협약 전 사무총장은 국부펀드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지구 기온상승을 야기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 (Bloomberg)</li> <li>- Christiana Figueres 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부펀드들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고 저탄소 전환으로부터 수혜를 얻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는데 집중해왔었는데, 기후 리스크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현행 조치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 또한 업계의 그린워싱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으나 국부펀드가 탄소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는 전략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비판</li> <li>- 업계가 그들의 투자 방향의 전환을 주저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조 달러를 원유 업체와 같이 지속가능성이 낮은 부문을 포함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전히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Christiana Figueres 는 이에 대해 국부 펀드들이 탄소 발자국을 감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li> </ul> <p><a href="https://bit.ly/3BrLHdH">https://bit.ly/3BrLHdH</a></p>
8/31	<p><b>BNP Paribas AM targets China's ESG winners with latest ETF</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NP Paribas 중국 내 ESG 투자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ETF 출시. ESG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중견 및 대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 프랑스 및 독일 거래소에 상장. Isabelle Bourcier 패시브 투자 총 책임자에 따르면, 동 ETF 는 핵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ESG 관련 투자를 하기 위해 구성했다고 전함. UN Global Compact Initiative 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ESG 기준과 관련된 논쟁이 있는 기업은 유니버스에서 제외</li> <li>- BNP Paribas 는 현재 128억 유로 규모의 ESG 관련 ETF 를 운용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 향후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패시브 투자 상품을 더 출시할 예정</li> </ul> <p><a href="https://bit.ly/3mUDESN">https://bit.ly/3mUDESN</a></p>

9/1	<p><b>KDB 산업은행, 펀드 위탁운용사 ESG 투자 평가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B 산업은행, 산은이 출자한 펀드의 위탁 운용사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를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평가 모형을 구축했다고 공시. 이들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유엔(UN) 책임투자원칙(PRI)과 해외 주요 출자기관 사례, 국내 사모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한 '위탁운용사 ESG 투자 이행점검 모형'을 제작</li> <li>- 해당 모형은 운용사의 ESG 투자정책 보유 여부, 스튜어드십코드·UN PRI 등 기구 참여 여부, 투자전략 수립 과정, ESG 투자전략 등을 평가 지표로 삼은 것으로 확인. 한편 이들은 매년 하반기에 외부 전문 평가기관이 이 모형에 따라 위탁운용사의 ESG 투자 역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향후 위탁운용사 선정시 가점 등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힘</li> </ul> <p><a href="https://bit.ly/3zDj8th">https://bit.ly/3zDj8th</a></p>
9/1	<p><b>탄소배출권 시장에 주목하는 헤지펀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32 억 자산을 운용하는 헤지펀드 트리베카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Tribeca Investment Partners), 1 억 달러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매수했다고 밝힘. 그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을 초과한 아시아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아태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li> <li>- 특히 호주와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와 UN의 *레드플러스(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프레임워크를 만족시키는 배출권에도 관심 보이고 있으며, 1 억 달러의 배출권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해 향후 탈탄소 펀드의 자산 규모를 5 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함</li> <li>-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18년 4 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탄소배출권 시장은 2030년까지 500 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이 외에 마크 카니 전 영란은행 총재와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터드 은행 CEO는 2020년대 말에 배출권 시장이 1,000 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li> </ul> <p><a href="https://bit.ly/3Bwjx16">https://bit.ly/3Bwjx16</a></p> <p>* 레드플러스는 산림을 농지 등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고 산림 황폐화를 방지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한편 산림의 탄소포집 능력을 높이고 산림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도입</p>

▲ 채권 시장

9/1	<p><b>교보생명, 최대 5000억 ESG 신종자본증권 발행...수요예측 '주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보생명, 창사 이래 처음으로 ESG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최대 5000억원 규모로, 생명보험사 중 최초의 ESG 채권 발행 사례임. 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을 이달 2일 진행할 예정.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원의 채권이 이달 10일 발행될 것으로 전망 됨. 금리 밴드 3.4~3.9%에 5년 플옵선이 제시 됨</li> <li>- 앞서 교보생명은 2017년 7월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음. 원화를 기준으로 신종자본증권을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를 통해 교보생명은 지급여력비율(RBC) 제고와 ESG 관련 투자 효과를 동시에 얻을 것으로 예상. 조달 자금은 재생가능에너지, 친환경적 건축물 및 교통수단 관련 분야, 취약 서민층에 대한 주택공급 관련 분야 등에 투자 예정. 또 신종자본증권이기에 교보생명의 RBC 비율은 올해 반기 기준 285%에서 292.17%로 증가 예상, 5000 억원으로 증액발행하면 296.94%로 올라감</li> </ul> <p><a href="https://bit.ly/3Dld5ak">https://bit.ly/3Dld5ak</a></p>
9/2	<p><b>[ESG 투자시대] 오직 친환경 '녹색채권' 발행 급증... '평가기준 아직 모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 녹색채권 상장잔액은 총 12조 8340억 원으로 작년 동기(2조 1800억 원) 대비 8배 증가. 지난달 13일 포스코가 발행한 11억 유로(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녹색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li> <li>- 녹색채권은 최근 1년 사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 KRX에 따르면, 작년 말 녹색채권 발행기관 수는 9개, 상장잔액은 3조 300억 원이었지만, 올해 8월 말 발행기관 수 54개, 상장잔액 12조 8340억 원을 기록. 이 같은 성장에는 기업에 대해 높아지는 투자자들의 ESG 기준과, 이에 친환경, 저탄소 관련 투자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니즈가 만난 것으로 평가 됨. 더욱이 기업은 녹색채권이 회사채보다 금리는 낮지만 수요가 많아 자금조달에 유리</li> <li>- 다만, 녹색채권이 빠르게 성장하자 녹색채권 인증과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부재하다는 문제가 떠오름. 정부는 지난해 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음. 이후 환경부는 금융위와 함께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인 K 텍소노미를 올해 4분기 내로 발표할 예정. K 텍소노미가 발표되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도 더욱 명확한 평가절차를 담아 개정될 것으로 예상 됨</li> </ul> <p><a href="https://bit.ly/2WLI5cs">https://bit.ly/2WLI5cs</a></p>
9/2	<p><b>LG 디스플레이 ESG 채권 3천억 규모 발행, "친환경 올레드제품 생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G 디스플레이, 친환경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될 자금 조달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 이번에 발행되는 제 43-1 회(2천억 원) 및 43-2 회(1천억 원) 무보증사채는 ESG 채권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총액 최대 5,000억 원까지 증액 가능</li> <li>- '22년까지 파주 친환경 OLED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Clean Room, Utility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 마련책으로 활용 예정. 또한 국제자본시장협회에서 제정한 녹색채권 원칙, 사회적 채권 원칙,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4가지 핵심 요소를 준수하여 발행한 것으로 확인</li> </ul> <p><a href="https://bit.ly/3DLydeE">https://bit.ly/3DLydeE</a></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 ESG 이벤트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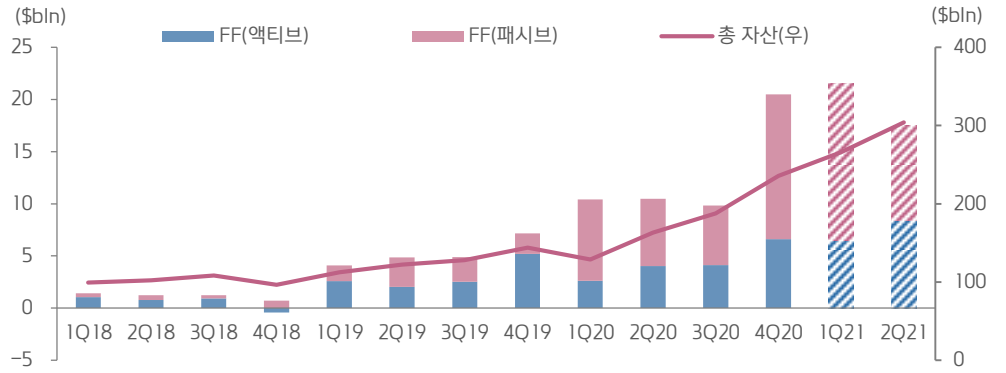
날짜	국가	이벤트	내용
3/10	유럽	<b>SFDR 발효</b>	-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 기관들, ESG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 환경,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됨. 18.3월 EU 지속가능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금융권 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제고 목표
4/21	유럽	<b>NFRD 개정안 발표</b>	- EU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최종 개정안 발표. 기존 NFRD 용어를 CSRD로 변경 제안하고, NFRD 규칙의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 등 포함. 이번 제안에 따라 비EU 법인의 EU 자회사도 의무보고 대상이 되며, 국내 대기업도 적용 대상 - 7월 EU 집행위의 기후법(Fit for 55)입법에 앞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따른 노력과 비용 분담 방법 논의 하기 위한 회담 개최
5/24~25	유럽	<b>EU 정상회의</b>	- 이날 특별 회담을 통해 코로나 19 및 기후 변화, 벨라루스 제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EU 대응책을 논의. 회원국에 기후 변화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1월 COP 26 회의 앞두고 G20 회원국들의 열정 보여줄 것을 장려
5/29	한국	<b>2050 탄소중립위 출범</b>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공식 출범 -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통합한 자문기구로, 향후 경제·산업·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예정
5/30~31	한국	<b>P4G 서울정상회의</b>	-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등 12개 국가 참여 -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계획 논의
6/28	유럽	<b>유럽 기후법 승인</b>	- 2050년까지 EU에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유럽 기후법"을 승인.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골자로 함 - 앞서 4월 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28 일(현지시간) 합의안에 공식 승인한 것.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은 유럽이 처음
7/14	유럽	<b>Fit for 55 패키지 발표</b>	- 2030년까지 유럽내 탄소 55% 감축(1990년 대비)을 위한 전략으로 유럽집행위는 12개의 입법안 발표. 구체화된 탄소국경조정세(CBAM) 초안, 탄소거래제(ETS) 개정안 등이 포함 될. 이 외에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항공·해운·육상운송 산업 등에서도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된 모습. 향후 Fit for 55와 관련된 포괄적인 방안은 앞으로 약 2년에 걸쳐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심의와 승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
7/16	중국	<b>배출권거래제 도입</b>	- 중국 전체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상하이 거래소 한 곳에서 통합돼 진행 시작. 초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화석 연료로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분의 1을 발생시키는 중국의 전력 기업 2,225곳을 대상으로 배출권 배정했고, 향후 적용 업종을 넓혀나갈 계획
3분기 중	유럽	<b>ESAP 설립 입법안 상정</b>	- EU 공통의 ESG 데이터 수집을 위한 유럽 단일접속지점(ESAP, European Single Access Point)을 설립하는 입법안 상정
10월 중	한국	<b>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적용</b>	-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
	한국	<b>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b>	- 탄소중립 위원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030 NDC 상황과 함께 10월에 발표하기로 결정. 7월에는 2050 시나리오 위원회 안을, 8월까지 NDC 위원회안을 마련
	중국-EU	<b>중-EU 테크노미 개발 논의</b>	- 양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인정되는 테크노미 시행을 목표로, G20 정상회의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10/11~24	글로벌	<b>생물다양성협약 COP15</b>	-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 2020년 이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 프레임워크 만들기 위한 논의 이뤄질 것으로 전망. 생물 다양성의 손실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식적지 보호, 수질 개선, 외래종 통제 등) 등 논의
11/1~12	글로벌	<b>UN 기후변화협약 COP26</b>	-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며, 각국 정상 및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행동 서약 등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기존 20년 11월에서 1년 연기 됨 - 또한 ESG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ISSB) 창설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상
4분기 중	한국	<b>K-ESG 가이드라인 마련</b>	-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와 공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의 K-ESG 가이드라인 마련.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기관의 평가체계 등을 분석해 핵심·공통문항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마련('21.12) - 기업 규모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구체화·차별화는 '22~'23년 진행, 국제 논의동향 등을 지속 반영할 예정
	한국	<b>K-테크노미 마련</b>	- 환경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테크노미 마련. 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 민간평가 기관의 지표를 분석해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 당초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와의 조율이 장기화되며 4분기 중으로 연기
	한국	<b>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도입 확산</b>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 가점 부여 등을 통해 도입 확산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 '21.6월 162개 기관이 채택 시행 중
	아세안	<b>ASEAN 테크노미 개발 착수</b>	- 올해 말까지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분류법' 개발 착수 예정 - EU 테크노미 규정과 같은 지속가능한 금융 지원을 위한 아세안의 공동언어 필요성 지적 - 앞서 이를 위해 싱가포르 및 태국은총재 등 8명으로 구성된 테크노미 위원회 발족

자료: 언론보도 종합,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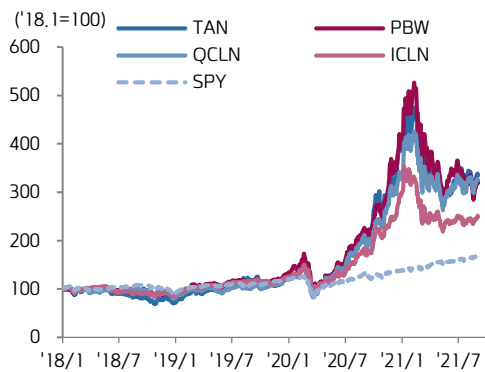
# ESG Chart

## 미국 ESG 펀드 자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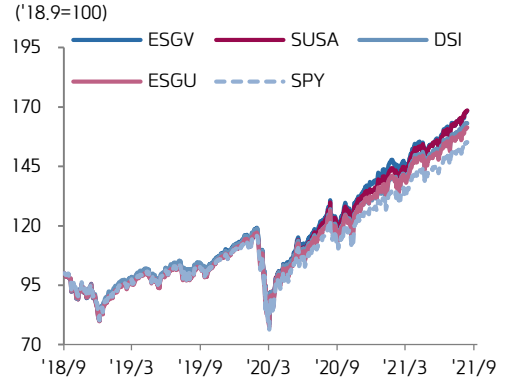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주) 21.6월 말 기준

## 대표 친환경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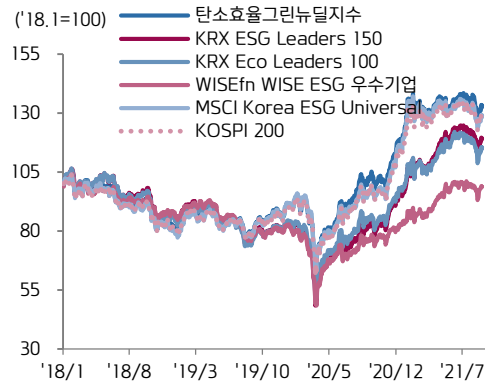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ESG 통합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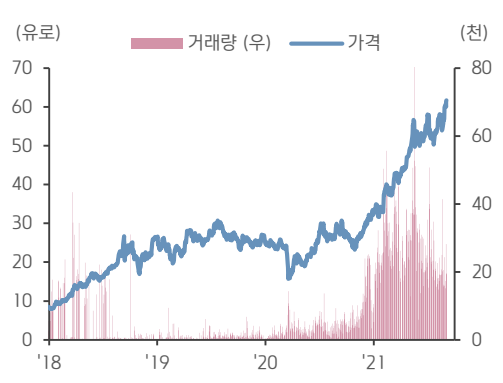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국내 대표 ESG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탄소배출권 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ESG ETF 주간 수익률

## 미국 ESG ETF 리스트 (1)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사회책임, ESG	0.15	22,505.5	+0.7	+2.6	+7.6	+21.0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사회책임, ESG	0.25	7,155.9	+2.8	+1.6	-4.6	+4.0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사회책임, ESG	0.20	6,858.2	+1.7	+2.0	+0.6	+12.9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2	6,298.8	+2.1	+2.9	+5.8	-16.4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ESG	0.12	5,288.0	+0.9	+2.7	+8.7	+21.0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ESG	0.10	4,095.8	+0.3	+2.4	+8.1	+22.9
USSG	Xtrackers MSCI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0	3,897.6	+0.3	+2.5	+7.9	+23.1
SUSA	iShares MSCI USA ESG Select ETF	ESG	0.25	3,827.5	+0.7	+2.8	+8.7	+23.8
DSI	iShares Trust -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	ESG	0.25	3,479.3	+0.3	+2.3	+7.5	+22.7
TAN	Invesco Sola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9	3,208.3	+2.3	-1.1	+12.0	-16.3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2,701.3	+1.2	-0.6	+7.5	-4.2
VSGX	Vanguard ESG International Stock ETF	ESG	0.16	2,609.7	+2.2	+2.1	-0.1	+10.6
PHO	Invesco Water Resources ETF	환경친화적	0.60	2,081.0	+1.5	+3.9	+12.4	+28.0
PBW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1,841.6	+1.8	-0.5	-4.6	-20.3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ESG	0.10	1,502.7	-0.1	-0.3	+1.2	-1.6
LCTU	Blackrock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15	1,449.0	+0.7	+2.7	+7.3	N/A
FIW	First Trust Water ETF	환경친화적	0.54	1,331.5	+1.2	+3.4	+10.1	+26.9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1,226.0	+0.7	+2.7	+7.5	+21.0
CGW	Invesco S&P Global Water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9	1,200.0	+2.0	+3.6	+11.6	+29.0
DRIV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환경친화적	0.68	1,145.3	+1.0	-0.1	+1.2	+20.4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ESG	0.35	1,111.8	+0.2	+2.0	+1.6	+18.6
ESML	iShares ESG Aware MSCI USA Small-Cap ETF	ESG	0.17	1,110.7	+0.5	+2.3	+1.2	+19.0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1,073.4	+1.4	+2.3	+3.9	+16.4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ESG	0.40	1,045.4	+0.1	+1.7	+0.3	+17.5
SUSB	iShares ESG Aware 1-5 Year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2	1,002.5	+0.0	-0.1	-0.2	-0.5
ACES	ALPS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5	953.5	+0.5	-1.3	+2.7	-11.6
NULG	Nuveen ESG Large-Cap Growth ETF	ESG	0.35	895.0	+1.0	+3.4	+14.6	+24.7
LDEM	iShares ESG MSCI EM Leaders ETF	ESG	0.16	893.6	+2.7	+2.1	-2.6	+7.5
SUSC	iShares ESG Aware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8	814.3	-0.3	-0.6	+1.8	-1.8
SNPE	Xtrackers S&P 500 ESG ETF	ESG	0.10	752.8	+0.6	+2.6	+7.8	+21.9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탄소 배출권 트레이딩	0.79	747.4	+2.9	+9.1	+20.4	+64.5
LCTD	Blackrock World EX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20	623.7	+1.5	+1.7	+0.6	N/A
SDG	iShares MSCI Global Impact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578.7	+0.8	+1.2	+2.6	+7.8
GRID	F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564.0	+0.6	+2.1	+8.9	+23.2
KRMA	Global X Conscious Companies ETF	ESG	0.43	501.1	+0.2	+1.6	+6.7	+21.0
IQSU	IQ Candriam ESG US Equity ETF	ESG	0.09	486.8	+0.9	+2.9	+9.8	+22.1
EUSB	iShares ESG Advanced Total USD Bond Market ETF	ESG	0.12	450.1	-0.1	-0.3	+1.1	-1.2
IDRV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7	437.3	+0.3	-1.1	+1.4	+16.3
USXF	iShares ESG Advanced MSCI USA ETF	ESG	0.10	425.7	+0.7	+2.2	+8.3	+22.5
ERTH	Invesco MSCI Sustainable Future ETF	환경친화적	0.65	422.9	+0.9	-0.1	+3.7	+3.3
PBD	Invesco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5	420.4	+2.6	+1.7	+0.6	-13.4
FAN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410.0	+3.4	+3.9	+5.4	-3.3
NUMG	Nushares Etf Trust - Nuveen ESG Mid-Cap Growth ETF	ESG	0.40	382.3	+1.3	+3.7	+13.7	+18.0
CNRG	SPDR S&P Kensho Clean Powe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5	375.3	+1.4	+0.2	-2.1	-8.7
EFIV	SPDR S&P 500 ESG ETF	ESG	0.10	342.2	+0.7	+2.7	+7.8	+22.0

자료: Bloomberg, 주) 2021-09-03 증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 미국 ESG ETF 리스트 (2)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PIO	Invesco Global Water ETF	ESG	0.75	332.9	+2.4	+3.5	+10.4	+25.4
SMOG	VanEck Vectors Low Carbon Energy ETF	환경친화적	0.62	306.9	+1.9	+0.8	+8.8	-1.5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사회책임	0.20	287.0	+0.5	+1.8	+6.1	+18.5
JUST	Goldman Sachs JUST US Large Cap Equity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20	265.0	+0.4	+2.5	+6.9	+20.9
NUBD	Nuveen ESG US Aggregate Bond ETF	ESG	0.20	264.1	-0.2	-0.5	+0.8	-2.4
KARS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2	260.5	-1.9	-3.6	+7.8	+17.6
NUMV	Nuveen ESG Mid-Cap Value ETF	ESG	0.40	256.3	+0.1	+2.2	+1.3	+25.3
EFAX	SPDR MSCI EAFE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253.2	+1.7	+2.0	+2.2	+12.0
D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AFE ETF	ESG	0.12	251.7	+2.1	+3.1	+3.6	+13.8
BGRN	iShares Global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241.2	-0.4	-1.0	+1.6	-1.4
VCEB	Vanguard ESG U.S. Corporate Bond ETF	ESG	0.12	216.7	-0.3	-0.5	+1.8	-2.0
BATT	Amplify Lithium & Battery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	0.59	214.7	+0.7	-5.2	+4.5	+12.2
IQSI	IQ Candriam ESG International Equity ETF	ESG	0.15	212.6	+1.6	+2.4	+1.4	+13.5
IBD	Inspire Corporate Bond Impact ETF	ESG	0.58	202.8	+0.0	-0.4	+0.7	-1.0
KGRN	KraneShares MSCI China Clean Technology Index ETF	환경친화적	0.79	197.9	+2.4	-3.5	+9.9	+6.7
ESG	FlexShares STOXX US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32	188.8	+0.6	+2.7	+7.6	+21.5
ESGG	FlexShares STOXX Global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2	184.9	+1.2	+2.4	+5.6	+18.9
EEMX	SPDR MSCI EM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30	181.2	+2.8	+1.0	-4.9	+2.1
ETHO	Etho Climate Leadership US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178.4	+0.2	+2.2	+5.6	+17.9
LRGE	ClearBridge Large Cap Growth ESG ETF	ESG	0.59	175.4	+1.0	+3.8	+11.1	+18.9
EMNT	PIMCO Enhanced Short Maturity Active ESG ETF	ESG	0.27	173.1	-0.0	-0.0	-0.0	-0.1
CTEC	Global X CleanTech ETF	청정에너지	0.50	170.2	+1.7	+2.0	+7.3	-10.9
ESGA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Equity ETF	ESG	0.39	150.9	+0.5	+3.0	+8.4	+21.6
NUDM	Nuveen ESG International Developed Market ETF	ESG	0.40	145.7	+1.8	+2.1	+2.0	+13.3
RNRG	Global X Funds Global X Renewable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5	145.1	+2.2	+1.4	+3.9	-8.8
MXDU	Nationwide Maximum Diversification US Core Equity ETF	ESG	0.34	121.9	+1.3	+1.7	+6.5	+14.7
LOWC	SPDR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119.1	+1.2	+2.2	+4.5	+16.0
HYXF	iShares Trust iShares ESG Advanced High Yield	사회책임, ESG	0.35	118.5	-0.0	+0.4	+1.1	+0.0
NUEM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ETF	ESG	0.45	113.7	+3.2	+0.4	-3.6	+6.2
XVW	iShares ESG Screened S&P 500 ETF	사회책임, ESG	0.08	104.8	+0.7	+2.8	+8.1	+21.8
NUHY	Nuveen ESG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35	101.7	+0.1	+0.5	+0.3	-0.8
RESP	WisdomTree US ESG Fund	ESG	0.28	99.0	+0.4	+2.5	+6.4	+21.3
GRNB	VanEck Vectors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98.9	-0.3	-0.3	+0.6	-1.7
HKND	Humankind US Stock ETF	사회책임	0.11	95.5	+0.7	+3.0	+5.0	N/A
CHGX	Change Finance US Large Cap Fossil Fuel Free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9	94.0	+0.4	+1.2	+9.2	+21.3
EVX	VanEck Vectors Environmental Services ETF	환경친화적	0.55	67.3	+0.7	+3.1	+4.8	+24.3
VEGN	US Vegan Climate ETF	사회책임, 기후변화, 환경친화적	0.60	64.7	+1.2	+2.8	+9.3	+20.9
GSFP	The Goldman Sachs Future Planet Equity ETF	ESG	0.75	61.0	+1.5	+3.8	N/A	N/A
EBLU	Ecofin Global Water ESG Fund	ESG	0.40	59.3	+1.8	+3.0	+8.7	+23.9
HDRO	Defiance Next Gen H2 ETF	청정에너지	0.30	43.7	+3.1	+6.7	-8.9	N/A
XIH	iShares ESG Screened S&P Mid-Cap ETF	사회책임, ESG	0.12	39.8	-0.2	+1.8	+1.0	+19.2
STNC	Stance Equity ESG Large Cap Core ETF	ESG	0.95	37.5	+0.6	+2.9	+8.4	N/A
EAOK	iShares ESG Aware Conservative Allocation ETF	ESG	0.18	36.6	+0.3	+0.5	+2.0	+4.0
HJEN	Direxion Hydrogen ETF	청정에너지	0.45	35.1	+2.6	+5.7	-3.9	N/A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34.6	+0.5	+2.7	+7.7	+19.9

자료: Bloomberg, 주) 2021-09-03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 미국 ESG ETF 리스트 (3)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RESE	WisdomTree Emerging Markets ESG Fund	ESG	0.32	34.5	+2.5	+1.1	-4.5	+7.2
WOMN	Impact Shares YWCA Women's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32.2	+0.6	+2.8	+8.0	+19.7
ESEB	Xtrackers J.P. Morgan ESG EM Sovereign ETF	ESG	0.35	30.8	+0.2	+0.7	+0.8	-2.1
RBND	SPDR Bloomberg SASB Corporate Bond ESG Select ETF	사회책임,ESG	0.12	30.1	-0.3	-0.5	+1.9	-1.8
NULC	Nuveen ESG Large-Cap ETF	ESG	0.2	27.7	+0.6	+2.7	+8.3	+22.1
JCTR	JPMorgan Carbon Transition U.S. Equity ETF	기후변화	0.15	27.6	+0.6	+2.6	+7.5	+22.0
ESGB	IQ MacKay ESG Core Plus Bond ETF	ESG	0.39	26.5	-0.1	-0.4	N/A	N/A
EMSG	Xtrackers MSCI Emerging Markets ESG Leaders Equity ETF	ESG	0.20	25.5	+3.0	+1.5	-4.7	+5.1
ESHY	Xtrackers J.P. Morgan ESG USD HY Corporate Bond ETF	ESG	0.2	24.5	-0.1	+0.4	+0.6	+0.5
MID	American Century Mid Cap Growth Impact ETF	ESG	0.45	22.4	+1.0	+2.7	+20.7	+18.9
RAFE	PIMCO RAFI ESG US ETF	ESG	0.30	21.1	-0.5	+1.6	+0.7	+22.0
EAOA	iShares ESG Aware Aggressive Allocation ETF	ESG	0.18	20.7	+0.9	+1.8	+3.3	+13.1
EASG	Xtrackers MSCI EAFE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4	19.4	+2.1	+2.1	+1.9	+11.6
YLDE	ClearBridge Dividend Strategy ESG ETF	ESG	0.60	18.7	+0.0	+2.1	+2.9	+15.2
ECLN	First Trust EIP Carbon Impact ETF	청정에너지	0.95	18.5	+2.0	+2.2	+5.3	+9.9
XIR	iShares ESG Screened S&P Small-Cap ETF	사회책임,ESG	0.12	16.0	-0.5	+2.3	-1.3	+20.2
MOTO	SmartETFs Smart Transportation &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68	15.3	+0.1	+0.6	+2.6	+15.5
E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M ETF	ESG	0.16	13.6	+1.9	+1.5	-2.8	+8.3
MIDE	Xtrackers S&P MidCap 400 ESG ETF	ESG	0.15	11.0	-0.5	+2.1	+1.2	N/A
KESG	Kraneshares MSCI China ESG Leaders Index ETF	ESG	0.59	10.8	+2.7	-1.7	-8.9	-0.9
LOPP	Gabelli Love Our Planet & People ETF	ESG	0.00	10.7	+0.7	+2.5	+3.0	N/A
SMLE	Xtrackers S&P SmallCap 600 ESG ETF	ESG	0.15	10.7	-0.4	+2.3	-1.4	N/A
ECOZ	TrueShares ESG Active Opportunities ETF	ESG	0.58	10.1	+0.5	+0.9	+9.0	+14.7
CBSE	Changebridge Capital Sustainable Equity ETF	ESG	0.85	9.9	+0.9	+2.9	+1.4	+26.4
PFUT	Putnam Sustainable Future ETF	사회책임,환경친화적	0.64	9.3	+2.0	+3.2	+13.5	N/A
ESNG	Direxion MSCI USA ESG - Leaders vs Laggards ETF	ESG	0.40	9.0	+0.8	+2.8	+8.5	+25.4
BNE	Blue Horizon New Energy Economy 100 ETF	청정에너지	0.87	8.8	+2.4	+1.5	+5.1	+5.5
TEGS	Trend Aggregation ESG ETF	ESG	1.15	8.1	+1.0	+1.2	+3.2	+11.8
RESD	WisdomTree International ESG Fund	ESG	0.30	8.1	+2.0	+2.1	+2.1	+13.8
EAOR	iShares ESG Aware Growth Allocation ETF	ESG	0.18	8.0	+0.7	+1.3	+2.8	+9.5
ESCR	Xtrackers Bloomberg Barclays Us IG Corporate ESG ETF	ESG	0.15	7.8	-0.2	-0.5	+2.0	-2.4
AQWA	Global X Clean Water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5	7.6	+1.8	+2.4	+8.5	N/A
IVLC	Invesco US Large Cap Core ESG ETF	ESG	0.48	7.6	+1.0	+2.5	+8.4	+20.9
ESGY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Growth ETF	ESG	0.39	6.1	+1.5	+3.5	N/A	N/A
EAOM	iShares ESG Aware Moderate Allocation ETF	ESG	0.18	5.9	+0.5	+0.8	+2.3	+5.9
ESGN	Columbia Sustainable International Equity Income ETF	ESG	0.45	5.7	+2.5	+3.1	-0.8	+13.0
SDGA	Impact Shar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lobal Equity ETF	사회책임	0.76	5.7	+0.1	+1.7	+2.0	+11.6
ESGS	Columbia Sustainable US Equity Income ETF	ESG	0.35	5.5	-0.0	+2.5	-2.4	+23.4
SULR	SmartETFs Sustainable Energy II ETF	환경친화적,ESG	0.79	5.5	+1.5	+3.0	+11.0	+13.8
GBLD	Invesco MSCI Green Building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39	5.0	-0.2	-1.2	-4.1	N/A
FSST	Fidelity Sustainability US Equity ETF	ESG	0.59	4.3	+0.3	+2.9	N/A	N/A
LGBT	LGBTQ+ ESG 100 ETF	ESG	0.75	4.1	+1.0	+2.3	+8.4	N/A
AVDG	AVDR US LargeCap ESG ETF	ESG	0.6	2.5	+0.9	+3.7	+7.0	+23.6
EPRE	First Trust TCW ESG Premier Equity ETF	ESG	0.85	2.2	+1.5	+1.3	+5.8	N/A
FDWM	Fidelity Women's Leadership ETF	ESG	0.59	2.1	+0.7	+2.0	N/A	N/A
IVRA	Invesco Real Assets ESG ETF	ESG	0.59	1.9	+1.6	+2.2	+0.4	+23.7
DTOX	Amplify Cleaner Living ETF	청정에너지	0.59	1.2	+0.5	-2.1	N/A	N/A

자료: Bloomberg, 주) 2021-09-03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 ESG 자료 발간 목록

2021/08/30	키움 ESG 브리프 Weekly (9월 1주) <a href="https://bit.ly/3jLW5b9">https://bit.ly/3jLW5b9</a>
2021/08-2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4주) <a href="https://bit.ly/2WxRuzc">https://bit.ly/2WxRuzc</a>
2021/08/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3주) <a href="https://bit.ly/3gKxqki">https://bit.ly/3gKxqki</a>
2021/08/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3주) <a href="https://bit.ly/3g2FKHK">https://bit.ly/3g2FKHK</a>
2021/08/11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 글로벌 연기금과 펀드의 ESG 투자 <a href="https://bit.ly/2XmL6eu">https://bit.ly/2XmL6eu</a>
2021/08/09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2주) <a href="https://bit.ly/3g2FKHK">https://bit.ly/3g2FKHK</a>
2021/08/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2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a href="https://bit.ly/3xugtQU">https://bit.ly/3xugtQU</a>
2021/08/02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1주) <a href="https://bit.ly/3jPD1H5">https://bit.ly/3jPD1H5</a>
2021/07/26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5주) <a href="https://bit.ly/3A0gLAh">https://bit.ly/3A0gLAh</a>
2021/07/19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4주) <a href="https://bit.ly/3zwlBVV">https://bit.ly/3zwlBVV</a>
2021/07/12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3주) <a href="https://bit.ly/3imCdsg">https://bit.ly/3imCdsg</a>
2021/07/05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2주) <a href="https://bit.ly/36uDxnC">https://bit.ly/36uDxnC</a>
2021/06/28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5주) <a href="https://bit.ly/3hfBREr">https://bit.ly/3hfBREr</a>
2021/06/2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4주) <a href="https://bit.ly/3gYwU2C">https://bit.ly/3gYwU2C</a>
2021/06/1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3주) <a href="https://bit.ly/35GxDix">https://bit.ly/35GxDix</a>
2021/06/0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2주) <a href="https://bit.ly/3gjAleM">https://bit.ly/3gjAleM</a>
2021/05/3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1주) <a href="https://bit.ly/3uR3veJ">https://bit.ly/3uR3veJ</a>
2021/05/2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4주) <a href="https://bit.ly/3i283vZ">https://bit.ly/3i283vZ</a>
2021/05/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3주) <a href="https://bit.ly/3ugq4ce">https://bit.ly/3ugq4ce</a>
2021/05/1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a href="https://bit.ly/2Qj0yFx">https://bit.ly/2Qj0yFx</a>
2021/05/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1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a href="https://bit.ly/3b18R97">https://bit.ly/3b18R97</a>
2021/03/16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EU, SFDR 시행 <a href="https://bit.ly/3tLTsqA">https://bit.ly/3tLTsqA</a>
2021/02/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4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a href="https://bit.ly/33JdTdi">https://bit.ly/33JdTdi</a>
2021/01/28	[ETF Issue] ESG, 금융시장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 <a href="https://bit.ly/3eO4szl">https://bit.ly/3eO4szl</a>
2020/11/10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3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a href="https://bit.ly/3tLGgCi">https://bit.ly/3tLGgCi</a>
2020/10/21	[ETF Issue] 패러다임 대전환 속 Green ETF 투자 <a href="https://bit.ly/3bqxpzu">https://bit.ly/3bqxpzu</a>
2020/07/13	[ETF Weekly] 바뀌어 가는 미래 <a href="https://bit.ly/3uPfpX0">https://bit.ly/3uPfpX0</a>
2020/04/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코로나와 거스를 수 없는 ESG <a href="https://bit.ly/2SOCIrk">https://bit.ly/2SOCIrk</a>
2020/02/13	[ETF Issue] ESG, ETF로 투자하기 ver.2 <a href="https://bit.ly/3w8O1DA">https://bit.ly/3w8O1DA</a>
2019/04/01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DSI,US)-글로벌 대표 ESG ETF <a href="https://bit.ly/3eMeq58">https://bit.ly/3eMeq58</a>
2019/03/29	[ETF Issue]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TF에 투자하기 <a href="https://bit.ly/3uZXZr7">https://bit.ly/3uZXZr7</a>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

**Compliance Notice**

---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고지사항**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